

지역 매아리

고창군, 공동주택 시설 개선 최대 3000만원 '무상지원'

고창군이 노후 공동주택 단지내 담장 허물기 사업 등에 단지당 최대 3000만원을 무상 지원하는 '2019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분양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단지당 지원금액은 최대 3000만원이다. 군은 올해 예산 1억원(도비5000만원, 군비5000만원)을 확보해 공동주택 약 4개 단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은 안전관리(재난·위험 시설물의 보수·보강, 석축 및 옹벽 등의 보수·보강 등)와 공용시설물관리(단지 내 도로와 보도의 유지보수, 가로등 보수, 담장 허물기 등)으로 구분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심의위원 이경호 지점장 위촉

정읍시는 26일 전북은행 정읍시청 이경호 지점장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심의위원에 위촉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다.

전북은행이나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시의 추천을 받아 용자를 지원받고, 시는 용자금의 이자 중 일부(연 2.0~2.5%, 2~4년)를 보전한다. 이에 낮은 금리로 기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에도 심의를 통해 신규 9개 업체에 22억원의 대출을 알선했다. 모두 44개 업체에 대해 이차보전금 1억5천여만원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유진섭 시장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위해 신입 위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자부심으로 전북은행이 시민을 위한 보다 다양한 금융 혜택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시도 기금을 통한 이차보전 외에도 다양한 사업과 정책 개발 등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3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전복 만들기' 우수시 선정과 함께 2018년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기업체감도 평가 전복 1위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또한 살맛나는 첨단경제도시 구현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사업체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국내를 넘어 세계로 발돋움

KCFT, 창립 1주년 기념 비전 선포식 가져

KCFT는 26일 창립 1주년을 맞아 정읍 북면 3산업단지내 위치한 정읍공장에서 비전선포식을 갖고 앞으로 미래 기업 혁신을 위한 비전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해 김적우 전북서남상공회의소장 등 주요 내·외빈과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창립 1주년 비전 선포식은 김영태 KCFT 대표이사가 직접 주재했다. 김 대표이사는 기념사를 통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션과 비

리에서는 KCFT의 경쟁력 강화 사업과 추가 산업단지 조성·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 200여명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KCFT 경영진, 유 시장을 비롯한 주요내빈들과 소통하고 함께 전시관을 둘러보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가 연출됐다.

김 대표이사는 "KCFT의 가슴 벅찬 대장정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농업인 소득 향상 최우선 과제"

평소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18일부터 29일까지 군민현장 소통주간으로 정하고 현장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권익현 군수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농업분야를 '소득·복지·마음' 3개 분야로 나누고 농업인 소득

향상 방안 등을 강구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초봄의 황량한 들녘에서 가을의 황금별관을 떠올리는 농부의 상상력이 꺾이지 않도록 작기작소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지역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부안군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 스마트팜 확대 등에 주력해 군민의 소득을 높여나가자"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해양문화유산 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26일 부안군청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안군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문화유산 업무협약 체결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이귀영)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양문화유산 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26일 부안군청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양문화유산의 조사·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학술행사와 전시 관련 정보 교류,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 개발 등에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해양역사와 문화의 보고이자 해양실�크로드의 주요 거점의 하나인 부안 위도(鰐島)의 해양문화유산을 협업체 조사·연구하고 그

위치는 명명하는 문명의 보고이다.

특히 위도의 반대편 변산반도 서쪽에 돌출된 죽마동 유적은 위도와 부안 앞바다를 향해하는 무역선들의 안령을 기원하는 노천제사가 고대부터 이뤄진 곳으로 현재에는 수성담이라는 담장에서 제사가 이뤄지고 있다.

부안 위도는 과거부터 국제무역선이 왕래하던 해양실�크로드의 관문이였다.

위도는 고슴도치를 닮은 형태로 도서지역에 위치한 유일한 관아인 위도관(도유형 101호), 위도 피켓놀이(국가무형 제82-3호),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 출신 박누리 감독의 상업영화 데뷔작 '돈'.

20~30대 젊은층까지 '복분자' 열광

고창 출신 박누리 감독 영화 '돈' 흥행 속 복분자 홍보 특목

영화 '돈'이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고창 복분자도 덩달아 주가를 올리고 있다.

26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 출신 박누리 감독의 상업영화 데뷔작 '돈'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영화 속 주인공 조일현(류준열)의 별명이 '복분자'로 표현되면서 평소 '복분자'에 별 관심이 없었던 20~30대 젊은층 관객들까지 '복분자'에 열광하고 있다.

여기에 영화 전체의 흐름에 고창 복분자 농장의 로케이션 촬영 아이디어가 군민의 삶 속에 고스란히 담겨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번 평생학습도시 지정으로 국비 9000만원을 지원 받는 등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 자원스텝과 네트워크 확충 등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사업으로 ▲행복학습센터 지정·

지리를 따지 못하고 마지막 농장 이름이 떠오르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역시 고창의 딸"로 엄지손가락을 번쩍 치켜세웠다.

복분자는 '요강이 소변 줄기에 뒤집어진다'고 하여 붉은 놀라운 이름이다. 전통적으로 복분자는 기력과 정력을 보강하는 상성 같은 열매로 여겨져 왔다. 최근에는 '복된 분들이 자시는(드시는) 음료'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특히 고창의 복분자는 미세열량이 풍부한 활토와 서해안의 해풍을 맞고 자라 다른 지역에서는 느낄 수 없는 달콤쌉쌀한 특유의 맛과 향에 반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평생학습도시 지정' 인문학 도시의 명성 재확인

고창군이 올해 교육부 지정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 인문학 도시의 명성을 재확인 했다.

26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가 주최한 '2019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다.

군은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 지정 관련 최종 보고회에서 비전(평생학습을 통한 포용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사회적 융합도시 실현)과 목표설정(매우 우수하고, 평생학습 관련 사업과 아이디어가 군민의 삶 속에 고스란히 담겨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번 평생학습도시 지정으로 국비 9000만원을 지원 받는 등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 자원스텝과 네트워크 확충 등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사업으로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 ▲온라인 글로벌교육 체제 구축 ▲주부형 방문 프로그램 운영 ▲농촌활력 CEO 프로그램 ▲시니어소득창출 프로그램 ▲지역재생 리더 양성 등 평생학습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고창군은 민선 7기 공약사업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 조례제정, 인력확충, 종합발전계획 등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인문도시 고창의 명성에 걸맞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 매진해온 것이 성과로 이어지며 국비 확보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미래로 향한 초석을 다지게 됐다"며 "앞으로 활발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민의 특성화된 사업 추진으로 군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간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간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열매가 익어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간산뽕주 GIFT SET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세 | 750ml 1ea/12%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세 | 375ml 5ea/13%

GIFT SET 6세 | 500ml 향복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세 | 375ml 2ea/13%

부안간산 뽕주
Premium Ohdi Wine

TEL : 063-684-9960
www.gangsanwine.com